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20년 종료를 앞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후속 경제사업(2021~202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경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I. 개요

농협 사업구조개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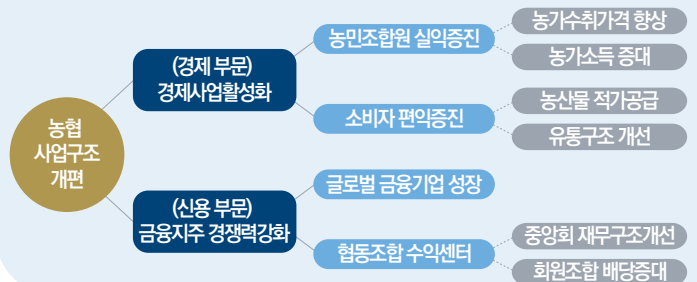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경제 부문)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전담할 경제지주회사를 설립
 - (신용부문) 신용사업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추진 현황

- 사업기간: 2012~2020년
- 농협의 총 투자액: 4조 9,592억원
- 정부의 재정지원: 9,647억원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사업, 2012~2020년, 이자보전 방식)
- 목표: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 산지조합 농축산물 출하물량 50% 이상을 농협중앙회가 책임판매

농협 사업구조개편 목적과 기대효과

- 1차적인 목적은 경제사업활성화
- 부가적인 기대효과
 - (경제 부문) 농가소득 증대 등 농민조합원 실익증진과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 (신용부문) 금융사업 수익향상 → 중앙회 배당증가 → 중앙회 재무구조 개선 → 회원조합 배당증가를 통한 협동조합 수익센터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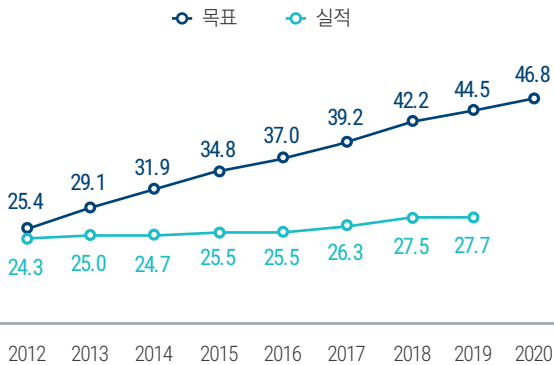
II. 주요 쟁점분석

1. 계획수립의 적정성 검토

· 향후 면밀한 경제사업 계획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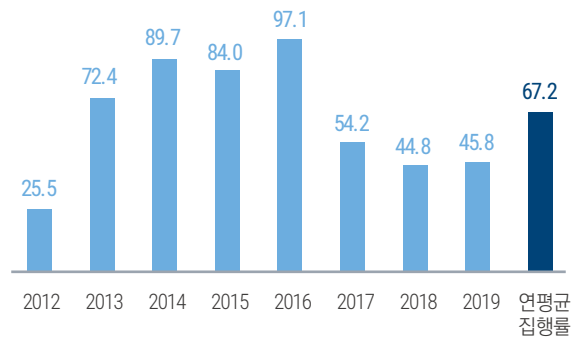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 수립
2019년 목표 44.5조원 대비 실적은 27.7조원

경제사업 물량계획 대비 실적(조원)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총 7차례, 해마다 505~8,820억원 변경
연평균집행률: 67.2%

경제사업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향후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온라인 유통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농협의 실행가능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 시행 필요

2. 농협 경제사업 관련 사업구조개편 이행실적 점검

· 사업구조개편 관련 이행 부진과제 계속 발생

· 정부의 현물출자 지연·변경

경제사업 자금지원 확대, 현금수지 균형 등 5개 과제는 연례적으로 이행실적 부진

농협의 이행미흡 과제 현황(2019년)

과제명	비고
경제사업 자금지원 확대	2년 연속
현금수지 균형을 위한 중기목표이익 책정 및 추진	4년 연속
소매유통 자회사 통합	3년 연속
안심축산, 축산공판 사내 분사화	2년 연속
청과도매, 공판사업 운영효율화	2년 연속

정부의 현물출자가 지연·변경되어 재정지원기간이 증가되고 농협의 자본확충이 지연
재정지원기간: 6년 증가, 농협의 자본확충: 5년 지연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연·변경 내역

	정부지원 내용	농협 자본확충
당초	이자보전 4.0조원, 현물출자 1조원 재정지원기간(2012~2016년, 5년간)	2012년
변경	이자보전 5.0조원 재정지원기간(2012~2022년, 11년간)	2017년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종료 이전에 이행 부진과제들이 완료·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 필요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

3.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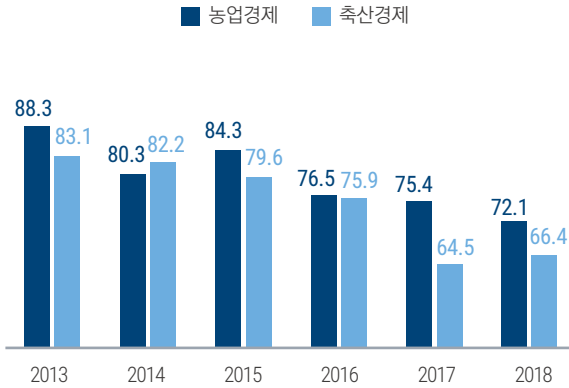
· 정부의 평가결과 미흡

· 경제사업 물량 연평균증가율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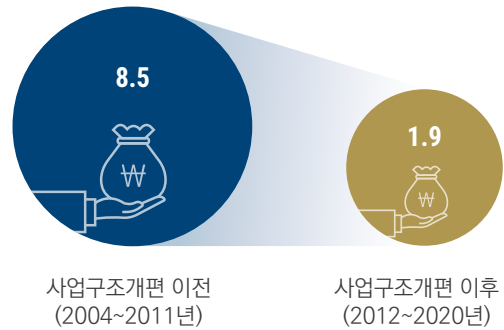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점수는 매년 하락
 농업경제: 88.3점 → 72.1점, 축산경제: 83.1점 → 66.4점

농협 경제사업 물량 연평균증가율은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비해 감소하여 투자효율성 저조
 사업구조개편 이전 8.5% > 이후 1.9%

농협 경제사업 정부 평가 추이(점)



농협 경제사업 물량 연평균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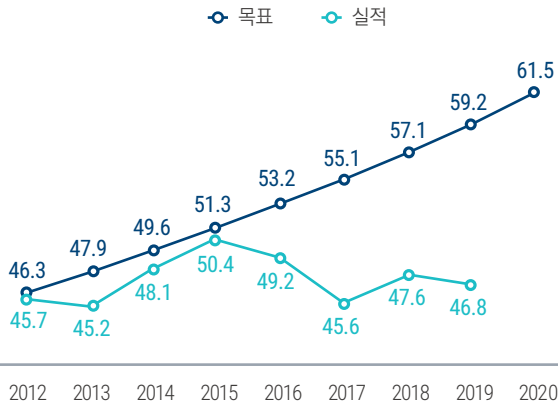
농협은 농업경제, 축산경제 등 부문별로 성과가 부진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 개선 노력 필요
 정부는 경제사업 평가가 농협 경제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환류장치 등 보완 필요

· 판매농협 구현 등 사업목적 미달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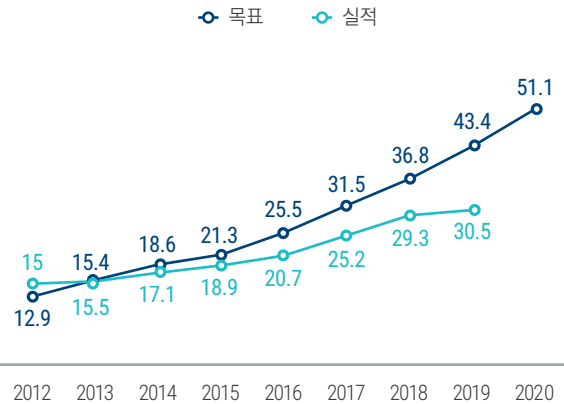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조합에 출하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지유통 점유비의 목표 대비 성과 부진
 2020년 목표 61.5% 대비 2019년 실적은 46.8%

조합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얼마나 중앙회에서 책임판매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앙회 판매비중의 목표 대비 성과부진
 2020년 목표 51.1% 대비 2019년 실적은 30.5%

산지유통 점유비 목표 대비 실적 추이(%)



중앙회 판매비중 목표 대비 실적 추이(%)



향후 농협은 산지유통 점유비, 중앙회 판매비중 등 당초 계획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기업농 등 농민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강화와 더불어, 공선출하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직접도매사업 등의 성과 개선 노력 필요

4. 농협 경제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 농민조합원 체감 효과 미흡

농협의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목표는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소득은 정체
 농가소득: 2018년 4,207만원 → 2019년 4,118만원
 농업소득: 1,000만원 수준에서 정체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등 추이

농협 경제사업 및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농민조합원 및 회원조합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의 55점 내외
 농민조합원 평균만족도(2018년): 56.7점
 회원조합 평균만족도(2018년): 51.8점

농협 경제사업 및 사업구조개편 만족도(점)

56.3

농민조합원

51.8

회원조합

농협은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체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유통비용률 증가 등 유통구조개선 미흡

· 농협중앙회 재무구조 악화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유통비용률은 증가 추세
 농산물: 2011년 41.8% → 2018년 46.7%
 축산물: 2011년 46.2% → 2019년 47.8%

농축산물 유통비용률 추이(%)

계열사 수익저하 → 농협중앙회로 배당감소 → 농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 부진 및 차입금 증가 →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지급여력 감소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 및 배당지급(중앙회→회원조합) 추이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19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 (억원)	목표(A)	10,382	14,885	18,733	24,590	27,817
	실적(B)	2,569	4,407	1,731	6,102	8,878
	차이(B-A)	△8,263	△10,478	△17,002	△18,488	△18,939
배당지급 (중앙회 → 회원조합)	배당액(억원)	3,159	2,821	1,896	1,677	1,779
	배당률(%)	7.5	6.0	4.0	3.5	3.7

농협은 농가의 계통출하 확대, 물류센터·공판장 등에서의 계통도매 확대, 농협마트·온라인 등 계통소매 강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노력 필요

농협은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재무구조 개선 노력 필요